

백운교회의 생태마을 만들기

- 그 백년을 위한 준비 -

남 상 도 (목사, 전남 장성 백운교회)

“내가 죽거든 우리 마을 어귀에 팽나무 한 그루 심고 그 위에 재를 뿌려다오. 100년 후 늘어진 나무 그늘 아래 구슬 땀 흘리던 농군 잠시 쉬어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고, 지친 도시 사람들 피로 회복의 시간으로 머무르고, 젊은이들 진한 사랑 나누는 창조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어린 꼬마들 흙 놀이, 말뚝 박기, 그네 타기 하면서 신나게 놀아대고, 애기 엄마들 넓은 젖가슴 드러내 놓고 생명의 젖줄을 풀어내리라. 100년 후 부활 하여 우리 농촌에 머무르며 행복한 미소로 그들의 포근한 그늘이 되리라.”

기독교는 오늘의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완결 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항상 변화와 변혁의 중심에 서는 종교이다.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는 자들에게는 아직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변화의 중심에 서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와 실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종말론은 역사를 후퇴시킬 뿐이

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과 구체적인 접근보다는 저 세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이상을 품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내적으로 보면 교계내의 부정부패, 사회에 대한 무관심, 교회 자체 성장 및 관리를 위한 자본주의 기업 성장 비결 도입 등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에서는 교회를 거부하고 있고 교회 역시 지역 사회와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못한 채 종교적 아편에 가까운 종말론을 복음 선포의 기초에 놓고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50년,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이 땅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보다 아름답게 진행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는 미래 역사에 대한 준비보다는 저 세상에 대한 준비만 외치다가 결국 이 땅의 파괴와 혼돈을 방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소수 지배 계급에 해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현세적인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종교를 현실적인 욕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손에 성경, 다른 한 손에 총과 칼을 들고 쳐 들어와 행복하게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 땅에서의 자신들만의 욕심을 채워왔다. 그러면서도 인디언, 흑인 등 기층 민중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종교적 아편을 통해 저 세상의 복락으로 대치시키면서 체제를 유지해왔고 이들이 전한 제 3세계의 복음은 위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었다. 천주교 200여 년, 기독교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땅에서 이제는 올바른 종말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운교회와 한마음공동체에서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백운교회와 한마음 공동체의 역사적 경과

개인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자기인식과 자기이해만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동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교회공동체가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을 가지려면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자기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자기 진단의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백운교회와 한마음 공동체가 가져온 변화와 변모를 드러냄으로써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한다.

1) 지역의 중심에 서는 교회와 공동체

백운교회는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령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교회이다. 39년의 역사를 가진 백운교회는 내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중의 하나였다. 부임 초기에는 일반 목회를 답습하면서 논밭으로 심방 다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목회의 전부였다. 열심히 심방하고 축복한 결과가 농작물의 풍작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목회의 방향이 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농민에게 저주가 되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다. 그래서 농촌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을 교육하고 함께 행동하면서 잘못된 구조악을 고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농민회 활동을 통해 교인들을 결집시키고, 농민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접근하면서 교회는 저 세상의 안락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신앙관을 벗어버리게 되었다. 민중신학을 통한 목회자 자신의 신학적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교회가 믿는 자들만의 교회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교회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세(水稅)싸움이다. 백운교회가 위치한 장성군 남면 지역에서는 수도작을 통한 벼 생산으로 연간 20억 원의 수익을 얻어 왔다. 그런데 이 중에 10%에 달하는 2억 원 정도가 수세로 빠져나가 농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세금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던 상태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수세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앞장 서 수세거부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는 대단한 것이었다. 지역의 필요를 교회가 앞장 서 해결하고자 할 때 지역주민들은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었다. 교회가 지역 농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교회건물 건축 시 전지역 주민들이 종교를 초월하여 (불교, 유교, 무속, 무신론 등)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던 즐거운 경험이 있다. 단순히 교인만을 위한 교회에서 모든 지역 주민을 위한 교회로 변화할 때 수많은 기적은 나타났다. 그러나 때로는 지역유지들과의 마찰이나 관공서나 경찰, 안기부의 외압에 의한 갈등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지역민들의 신뢰는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큰 힘이 되었다. 이처럼 투쟁 중심의 교회 활동은 1984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면서 농촌목회자로서의 농촌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났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투쟁중심의 활동은 농민들을 조직하고, 농민들의 현재적 상황에 민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점이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자연이 농약과 제초제 등으로 인하여 황폐화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자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부르는 유기농업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도·농 교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약한 규모였지만 직접 생산 현장에서 물건을 수집하여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의 시작은 현재 년 매출 12억 규모의 유통공동체인 한마음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마음 공동체의 탄생은 지역 농민들에게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일이고 농민들의 삶을 둘러싼 악순환을 끊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농산물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구하려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며 그 결과 농약의 과다사용은 농민들을 병들게 만들었다. 제값도 받지 못하면서 몸은 몸대로 망가지는 현실에 대한 자각은 당연히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과 유기농사로 접근되었다. 공동체 식구들과 더불어 유기농사를 지으면서 흘린 땀방울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공동체에 출자하게 되었고, 그 출자금들이 모여 광주지역에 한마음공동체 자체 매장을 갖게 되었다. 지금 현재 광주 지역에 5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우스와 논농사를 경험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병해충과 제초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실험과 과학적인 접근을 한 결과 하우스에 발생하는 진딧물을 비롯한 병충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당벌레, 풀잠자리 등 천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고, 논농사의 제초문제는 우렁이를 사용하여 해결방안을 찾게 되었다. 천적농법과 우렁이 농법은 지역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개되었고 지역 농민들의 호응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아울러 퇴비장을 만들고 자운영을 휴경기에 심어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2)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준비

2000년에 접어들면서 또 한번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수 있는 공간과 토종동물들을 모아놓은 공간, 미꾸라지와 우렁이를 손으로 잡아보는 공간, 창포와 연꽃을 심어놓은 저수지, 주말농장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공간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000년 4월 자연학교 내에 생태유치원을 개원해서 지역의 아이들과 광주에서 자녀들을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길 원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불러모아 교육하고 있다.

현재 환경농업교육장과 자연학교는 약 10,000평의 대지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다. 귀농학교, 귀농창업 농업후계인교육, 정농회를 비롯한 친환경농업단체교육, 천연염색학교, 황토 집짓기 학교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개설된 학교들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의 뜻 있는 사람들을 묶어내고 있으며 이들과 더불어 지역 농민들이 학교에 참여할 기회들을 넓혀가고 있다.

2. 백운교회와 한마음공동체의 백년의 준비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신앙공동체인 백운교회와 유통공동체인 한마음공동체, 그리고 목적공동체인 한마음 환경농업교육장, 한마음 자연학교가 그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농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백운교회와 생산, 소비, 유통을 한데 어우르는 한마음공동체,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도시소비자와 청소년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유도하는 환경농업교육장, 자연체험학교는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이 공동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한국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국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백년의 준비를 표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백년의 준비는 우리 공동체의 꿈과 비전을 담아내는 것이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공동체를 백년의 준비의 틀 안에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해방공동체 - 혈연을 넘어 지역공동체로

이집트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해방의 경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기초가 되었다. 이들이 경험한 해방은 공동체가 경험한 해방이었다. 이 공동체적 해방은 이스라엘을 당대의 모순에서 벗어나게 했다.

출애굽기는 읽는 이들로 하여금 당대의 모순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왔다. 신앙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현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출애굽기를 통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신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모순들을 극복하고, 모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 당대의 모순들을 분명히 읽어왔고, 그 모순에서 해방을 꿈꾸는 신앙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하나님 신앙을 현실화시켜왔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공동체적 해방이 제국주의의 침탈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와 대항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해방의 길을 모색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잔존하는 외세의 힘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오늘도 외세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좀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70-80년대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한 우리의 모순은 군사독재였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패악한 모습들은 출애굽기를 읽어냈던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복의 대상이었다. 민주화를 위한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꺾이지 않았던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발견한 해방은 분단조국에 대한 접근에서 구체화되었

다. 민족분단의 현실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압제와 굴레가 이 땅을 짓누르고 있음을 엄연히 인식하면서도 그 틀이 너무 강고해서 산발적인 저항에 그치던 것이 민주화과정을 통한 국민의식의 고양과 선견적 지도자들의 리더쉽으로 인해 우리에게 분명한 모순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민족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화해의 자리에게까지 이르게 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발견해야 할 당대의 모순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존재하는 외세의 간섭, 비민주적인 현실, 분단조국의 현실이 우리의 모순이다. 동시에 읽어야 할 모순으로 우리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혈연주의를 들고자 한다.

한국사회를 움아매고 있는 혈연주의의 끈은 수많은 병폐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부조리와 부정부패, 경제불의 등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여지없이 혈연주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 타민족에 비해 유독히 강한 혈연에 대한 강고한 끈이 풀어지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혈연주의를 현재적 모순으로 규정하고 혈연주의를 넘어선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하는 것이다. 가족중심의 혈연공동체가 아닌 지역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키부츠이다. 이스라엘 키부츠는 농사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변화를 시도하여 농작물로 인한 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키부츠의 운영방식은 이미 혈연주의를 넘어선 상태이다. 지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키부츠처럼 우리 공동체 역시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 지속적인 변신을 꿈꾸어갈 것이다. 100년의 준비는 고정된 틀이 아닌 살아있는 현장에서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2) 생활공동체 - 의식주, 문화, 교육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동체

한마음공동체는 농촌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듯 그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한 접근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농촌교회가 해야 할 일은 농촌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그동안 농촌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먹거리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삶의 근거가 되는 식의주(食衣住)의 문제와 함께 가치관을 점검하고 바른 가치를 갖도록 하는 교육의 문제, 그리고 교육이 현실화되어지는 문화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식(食) -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농촌이 가진 자원 중에 제일 우선이 먹거리이다.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내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값싼 농산물의 수입과 쌀의 전면 개방은 농가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뿐더러 가공처리 및 포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기술을 가진 물건들이 들어온다면 소비자들의 시선은 당연히 그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농산물이 지닌 취약점은 화학살상 농법에 의해 재배 생산된 것이고, 장거리 운송을 위해 여러 가지 화학 약품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색깔이나 향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착색제, 향신제 등이 첨가된 먹거리라는 점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힘들더라도 화학비료나 제초제, 농약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일이다. 한마음공동체와 백운교회는 지난 10여 년의 세월동안 축적되어온 유기농업에 대한 기술과 광주지역을 아우르는 유통공동체와 소비자조직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농민의 경제적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 젊은 인적 자원들을 통해 지속적인 성

장의 기초를 닦으려고 한다.

② 의(衣) - 천연염색을 활용한 의복 문화의 개선

농촌이 지닌 자원들을 바탕으로 생산되고 상품화된다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옷이 있다면, 도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천연염색을 한 옷은 착색제나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물들이 옷보다도 통기성, 흡습성, 향균성이 뛰어나다. 천연 염료의 재료는 우리 농촌의 들과 산에 널려있는 것들이다. 황토, 쑥, 치자, 오배자, 홍화, 감, 재 등 수많은 자연의 소산물들이 천연염색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의복문화가 사람들의 삶을 더욱 더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마음공동체는 지역농민과 더불어 도시 소비자들의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가 됨으로써 의복문화를 바꿔가는 일에 일조하고자 한다.

③ 주(住) - 향토색 짙은 주거문화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주택문화가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흙집과 구들장이다. 흙집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집들과는 달리 통기성이 좋으며, 흙 자체가 지닌 장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집들이 농촌에 들어선다면 도시인들에게는 넉넉한 고향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농민들에게는 건강과 농외소득을 보장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한마음공동체와 백운교회는 교회식구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신축을 할 경우에 가능하면 황토집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형태의 농촌 경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 와세다 대학에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제시하도록 용역을 주었는데, 그들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농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위주가 아닌, 농촌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농림성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까지의 관광이 보고, 먹고, 즐기는 차원의 관광이었다면, 앞으로의 관광은 그것과 더불어, 실제적 삶을 접하고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인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정을 느끼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이러한 관광의 진행과정은 필연적으로 농촌문화체험관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촌문화체험관광은 농촌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도시인들이 농촌지역의 삶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한 마음공동체와 백운교회는 한국농촌의 미래가 바로 이러한 녹색관광에 달려있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녹색관광단지로 변천시켜가고자 한다.

④ 평생교육의 장으로써의 농촌

농촌은 인간에게 있어 참으로 필요한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자연경관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부분을 기억하게 하고, 삶을 정비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의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인들에게 참다운 가치와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체험학습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인들이 농사철에 모여와서 농사일을 돕는 경험에서부터, 농촌의 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예, 천연염색, 흙집 짓기 등에 참여, 자연환경의 혜택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삼림욕, 황토방 체험 등 수 많은 체험들이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도시인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마음공동체는 유치원을 통해 지역의 아이들과 도시에 있는 생태적 환경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체험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아이들과 도시의 뜻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대안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해갈 것이다.

⑤ 다양한 문화체험 - 축제의 일상화

공생의 삶과 살림의 삶으로부터 형상화되어 나오는 문화는 축제이다. 농촌은 예전부터 이 축제가 일상화되어온 공간이다. 농촌에는 세시풍속(歲時風俗)외에도 다양한 문화가 있다. 24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행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에 연결된 많은 요소들이 인간의 삶을 축제적으로 만들어 준다.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가 주는 삶의 활력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금 축제를 찾게 된다. 그러나 이 축제가 일상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회성으로 그쳐버릴 것이고, 실제로서 농민들의 소득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한마음공동체와 백운교회에서는 지난 15년 간 도시소비자와 지역농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추수감사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 정월 대보름날 지신밟기 행사를 행하고 있다. 이런 행사들 외에 여러 가지 축제행사를 기획하고 농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3) 백년 후의 부활을 꿈꾸는 부활 공동체

백운교회와 한마음공동체는 부활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현장은 농촌이다. 그리스도의 약속인 부활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백운교회와 한마음공동체는 '나무 무덤'을 통해 현실화시키고 있다. 나무 무덤이야기는 내가 농촌현실 속에서 경험한 신앙적 고백이다.

나무 무덤을 제안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농촌의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농지의 잠식을 들 수 있다. 옛날에는 풍수지리를 보아 산자락에 무덤을 썼으나 지금은 교통 좋은 길목에 묘 자리를 쓰므로 귀한 농토가 잠식당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무덤 문화가 잘못된 혈통주의 문화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손과 선조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 가족과 자기 가문을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는 훗날 마을 나무 앞에 모든 자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선조들은 혈통이 아닌 지역공동체를 위해,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마을의 나무가 되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부활의 증인으로 남아 있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셋째, 그 동안의 역사는 권력을 쥔 소수의 역사만을 남겨 놓았다. 우리는 한 개인 개인의 힘들이 모여 역사를 이루어왔다고 보는데 그 개인 개인의 역사가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우리는 삶의 뿌리가 되는 움직이는 민중의 역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나무 나무마다 이름을 새기고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먼저 삶을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부활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 부활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다지는 부활공동체로써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10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4) 농업을 통한 그리스도의 전파를 꿈꾸는 선교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100년의 준비 속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제3세계의 농업지도자들과 여러 선진 농업국들의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농업 센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우리의 농업 이해는그 다면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다. 농업의 다면적 기능이란 농산물 공급뿐만 아니라

국토보전, 수원 함양, 자연환경의 보전, 양호한 경관 형성, 문화 전승 등 농촌의 다양한 기능을 말한다. 즉 농업의 기능을 단순히 농산물 공급에 한정하지 않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과 문화적 가치 전승 등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유지, 보존하는 데에 두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창조질서를 보전하고자하는 일 자체가 선교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로 선교공동체로써 부르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 일에 전력하고자 한다.

3. 결론을 대신하여

한마음공동체와 백운교회는 100년의 준비를 통해 완성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 완성은 주님의 재림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꿈꾸며 현실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무모한 모델링은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여건과 현실에 맞추어 각자의 위치에서 꿈꾸는 백년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 농촌교회는 각기 백년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